

수신 : 관료적 문화행정 철폐와 광주비엔날레 정상화를 위한 범미술인위원회(이하 범미위)
위원 제위

발신 : 위원장 김용익

내용 : 범미위 활동경과보고 및 향후 발전방향을 위한 모임 안내

우선 그간 범미위의 활동에 대해 이렇다할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뒤늦게나마 그동안의 경과에 관한 보고와 향후 활동방향에 관한 토론의 시간을 갖고자, 간략한 취지문과 관련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제3회 광주비엔날레의 최민 전시총감독 해촉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범미위(12월 29일 발기인 대회)는 지난 3월 20일 2차 성명서 발표를 끝으로 사실상 공식적인 활동중단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범미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범미위의 문제제기에 동의하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지원세력에 힘입어 광주비엔날레는 몇 가지의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동시에 변화의 상당부분은 우리가 애초에 기대하고 요구했던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이 때문에 향후 비엔날레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주비엔날레와 관련, 범미위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못지 않게 그 활동의 파생 효과 또한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범미위가 몇 가지 차원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보다 끈질기게,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대처하려는 입장 및 태도들과 관련됩니다. 현재 그 가시적인 성과로 우선 대안공간 풀이라는 공간의 탄생과 문화개혁시민연대라는 새로운 모임의 결성을 들 수 있습니다. 대안공간 풀이 미술에 대한 공공의 담론을 지속시키려는 미술인들 중심의 공간으로 시작되었다면, 문화개혁시민연대는 미술이 우리사회에서 공공성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서 시민적인 연대를 모색하는 모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범미위 활동결과와 광주비엔날레조직의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별첨자료 참조)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상황변화를 전제로 향후 범미위의 활동방향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무더위가 한참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부디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시 : 1999년 8월 2일 1시 30분 - 4시 30분

장소 : 인사동 대안공간 풀(tel : 735-4805/ 백악예원 지하 구 21세기 화랑)

- 내용 : 1. 범미위 활동 보고 - 김용익, 대책위 1인
2. 대안공간 풀 소개 - 이영욱
3. 문화개혁시민연대 취지보고 - 심광현, 양현미
4. 향후 범미위 활동방향에 관한 토론

* 참석여부를 알려주시면 모임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락전화 : 박찬경 016-362-6495/백지숙 016-351-6072)

별첨자료 1 범미위관련 활동경과 요약

별첨자료 2 범미위위원 명단

별첨자료 1 범미위 관련 활동경과 요약

98년

- 12월 21일 최민 총감독 해임가결
- 12월 23일 민예총 명의 성명서 발표
- 광주비엔날레를 정상화하고 관료적 문화행정 타파 요구.
- 12월 24일 광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행정자치위원장 박선정
- 광주비엔날레 파행의 자충수로 총감독 해임한 지역이기주의에 대해 문
제제기
- 12월 26일 시립미술관장, 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실 직원 6명에게 재계약없음 통보
- 12월 29일 광주비엔날레 정상화와 관료적 문화행정 철폐를 위한 범미술인 위원회 발기
인 대회 (서울 갤러리 나무, 오전 11시)
: 김용익 발기인 대표 포함 131인의 발기인 명단및 발기취지문 발표
- 12월 29일 전시기획위원 13인 성명서 발표 및 사퇴표명
- 12월 30일 오광수 환기미술관장을 새 전시총감독으로 선임하고 이종상 서울대교
수, 황영성 조선대교수 등 17명을 새 전시기획위원으로 제청.

99년

- 1월 5일 범미위 기자회견(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 오전 11시)
- 범미위 위원명단 발표, 범미위 성명서 및 광주시장과 신임 총감독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발표
- 범미위 위원들에게 자료집 발송
- 1월 6일 광주비엔날레 정상화와 관료적 문화행정 철폐를 위한 항의엽서전 (이십일
세기화랑)
- 1월 11일 광주비엔날레 및 관료적 문화행정에 관한 범미위 공청회 (서울 출판문화회
관, 오후 1시 - 4시)
: 발표자 - 도정일, 김수기, 강홍구, 이기우
- 1월 11일 제3회 광주비엔날레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 참가(오후 3시 광주YMCA 2층
백제실)
: 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표 윤장현)

- 1월 12일 광주비엔날레 귀하 전 개최 (광주 카톨릭 회관)
- 1월 12일 박석우 미협 이사장과 윤우학 평론가협회 회장 명의의 서한(12월 24일자)
에 관한 해당 협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편지 발송
- 1월 20일 광주지역 30 여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광주비엔날레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이하 대책위) 발족
: 공동대표 鄭찬용 광주 YMCA 사무총장 등 16 명
- 1월 22일 9인위원회 결성 광주비엔날레 정상화를 위한 수습방안 논의
- 민영화 가닥 잡음, 공동이사장제 검토
- 1월 25일 류수택 광주행정부시장 항의 방문
- 9인위원회 수습방안에 관한 범미위의 제안
- 고재유 광주시장의 답변(1월 5일자 범미위의 공개서한에 대한)에 대한 범
미위의 의견전달
: 김용익, 최진욱, 안규철, 이재현, 박찬경
- 1월 28일 광주비엔날레를 아끼는 범미술인 전국연합(미협, 예총 소속 미술가 등
1772명) 현 집행부를 지지하는 성명 발표
- 2월 3일 오광수 전시총감독, 명예훼손 혐의로 신경호, 임옥상 등 민중미술가 9인과
발
- 2월 3일 민예총, 민족작가협의회 등 16개 시민,사회,예술단체 광주비엔날레 과행에
관한 공동회견
- 2월 5일 오광수 전시총감독, 제3회 비엔날레 주제 [人 + 間] 발표
- 2월 5일 전시 계획안급조에 대한 비난성명
: 대책위 3회 전시기획안 비교자료(전학예연구실 직원 작성) 배포
- 2월 5일 2. 5 회 광주비엔날레 전 개최(나무화랑)
- 광주비엔날레의 과행운영을 비난하고 비엔날레의 출품및 관람 거
부 선언.
- 2월 24일 광주비엔날레 제2창설을 위한 정책토론회(광주 YMCA)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주최, 대책위 주관
: 이섭, 최석태, 박찬경 발제
- 2월 25일 오광수 전시 총감독,커미셔너 6명 및 큐레이터 10명 발표

- 2월 26일 고재유시장 광주시립미술관과 비엔날레 재단 분리방침 공포
- 3월 2일 최영훈 시립미술관장의 비엔날레 사무차장 겸직 해제
 류수택 행정부시장의 비엔날레 사무총장 겸직 해제
 해임 학예연구원 6명 복직(엄혁, 김수기는 5일자)
- 3월 3일 광주비엔날레 29차 이사회
 - 이사진 확대 (17명에서 30명으로), 김태홍 정무부시장 사무총장 선출
- 3월 20일 범미위 2차 성명서
 - 광주비엔날레의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견해
- 4월 1일 차범석 한국문예진흥원장 신임 이사장 선출
 고재유 시장 명예이사직 선출, 공석중인 부이사장 1석에 김양균 변호사, 감
 사 1석에 김국웅 (주) 무등 대표 선출
- 5월 13일 이사회 개최 (* 주요결정사항은 한겨레 신문 기사 참조)
- 6월 15일 김태홍 정무부시장 및 김상윤 신입사무차장 면담
 - 최민 전총감독 및 전전시기획위원들에 대한 사과의 뜻 전달
 - 광주비엔날레 개혁을 위한 기획단 설립에 의견동의
 : 최민, 김용익, 이재현, 박찬경, 이섭, 백지숙, 박삼철 참석
- 7월 5일 광주시 2단계 조직개편안 발표
 - 광주시립미술관의 사무국 폐지 재단 사무처가 집행업무 총괄, 완전 민영
 화 체질로 전환.
 - 시립미술관도 재단법인광주와는 별개의 슬림한 조직으로 변화(총 75명
 의 정원은 35명 선으로 조정될 전망)

광주비엔날레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새 천년의 개막과 5.18항쟁 20주년에 맞춰 열리는 2000년 대회의 의미는 각별하다. 정체성 확립과 문화적 비전을 바라는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 비엔날레의 차별성과 영속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른다.

이번 비엔날레는 파란만장한 3년의 세월 속에서 준비되고 있다. 전시총감독에 선임됐던 최민씨를 오광수씨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문화계 안팎에 적지 않은 풍파가 일었다. 관 주도의 한계를 비판하며 민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셌다. 지난해 12월부터 반년 남짓 이어진 파행은 광주지역 시민대표들의 중재로 지난 5월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어렵사리 수습의 물꼬를 텄다.

총감독 해임 파문이 계속되면서 광주시는 '관 주도 문화행사'라는 달갑지 않은 딱지에 부담을 느꼈다. 빠듯한 준비 일정도 새판짜기를 재촉했다.

시는 시민 대표 9명의 합의를 수용해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던 이사장에 민간인 차범석씨를 선임하는 선으로 물러섰다. 민영화 추진과 미술관 분리도 약속했다. 비판세력은 오광수 총감독을 인정하고 주제 선정, 전시구성 등을 받아들여 갈등을 봉합했다.

비엔날레 정상화를 위한 김윤기(42)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일시에 새판을 짜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민영화의 가닥은 잡혔다"며 "광주시, 이사회, 사무처, 기획위로 공을 넘긴 만큼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시는 미술관 설치 조례를 개정해 법률적으로 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시립미술관과 재단사무처가 제도적으로 분리된 것이다. 이사진을 상당수 교체하고 해임했던 팀장급 전문가의 복직과 배치도 무리없이 이뤄졌다.

공무원과 민간인이 겹치는 이중 구조는 이달 말까지 이뤄질 행정조직 개편에서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비엔날레 추진 인력은 #미술관 공무원 40명 #재단사무처 공무원 45명 #민간인 35명 등이다. 비엔날레 기간에는 지원 인력으로 공무원 60여명이 추가 파견된다.

박유복(39) 노조위원장은 "현행 직제는 사무총장-사무차장-사무국장-부장-팀장으로 짜여 '옥상옥'"이라며 "이사회 결정을 존중하지만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못박았다.

이번 비엔날레는 2000년 3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71일 동안 열린다. 주제는 '인(人) + 간(間)'이다. 오 총감독은 주제에 대해 "새로운 세기를 맞아 인간과 그를 둘러싼 상황 및 조건을 조명하려는 의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본 전시인 국제현대미술전은 9월까지 르네 블록, 타니 아라다,

탐 핀켈펠 등 커미셔너 6명이 국내외 작가 80명을 선정한다.

이번 대회와 종합적 추진계획은 이달 중순까지 마련된다. 재단은 주제가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 미학적, 철학적 바탕을 세우는 작업에 땀을 흘리고 있다. 대회 흐름이 보수적 기조로 흐르지 않게 진보적인 내용의 이벤트와 영상으로 보완한다는 전략이 담겨진다. 영상을 통해 청소년에게 난해한 현대미술을 애니메이션이나 시뮬레이션 등으로 설명함으로써 미래의 관객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특별전이나 부대 행사는 전시 초점을 분산시키지 않도록 과감하게 정리할 예정이다.

비엔날레 기금은 현재 202억원이다. 연간 기금 이자 15억원 (연리 7.5% 기준)으로 경상비를 충당해야 한다. 이런 수입은 민영화를 위한 물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많다. 당장 이번 대회는 공무원 조직을 뼈대로 하고 민간 전문가가 보조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재단쪽은 이번 대회 과정에서 민영화 추진을 위한 기획단이나 연구팀을 만들어 방향과 일정을 짚는 구상이다. 미술전문가 경영전문가 등이 참여한 한시조직을 만들어 대회 종료 이전에 청사진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뼈대는 #회계 체계를 행정방식에서 기업방식으로 전환하고 #조직을 하위직 공무원 중심에서 순수 민간인 출신으로 바꾸며 #기능이 중복된 조직을 기획(총감독)과 집행(사무총장) 분야로 나눠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이다. 특정 총감독이 성격과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전시의 틀거리를 정립하고 전시에 마케팅 개념을 도입한다.

재단은 또 대회 이후 공채를 통해 35명 가량의 정규 직원을 뽑아 계약제에 따른 신분 불안을 없애고 안정적인 구조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진정한 민영화의 기틀을 다진다는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정상화와 관료적 문화행정 철폐를 위한 범미술위원회 김용익(52. 경원대 교수) 대표는 "민영화를 위해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조직의 몸집 줄이기가 시급하다"며 "재단이 형식적인 민영화를 넘어 실질적 내용을 담보하고 구체적 일정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별첨자료 2 범미위원회 명단

강성원, 강요배, 강태희, 강홍구, 공성훈, 곽남신, 곽은숙, 구분주, 권용택, 길예경, 김경주, 김기용, 김두섭, 김범, 김보중, 김봉렬, 김봉준, 김서봉, 김성계, 김세진, 김수기, 김수정, 김영수, 김영진, 김용익, 김용태, 김정현, 김주현, 김준, 김지원, 김창남, 김태현, 김학량, 김해민, 김현도, 김형배, 김홍주, 나종희, 노석미, 류용문, 류장복, 문범, 민지화, 민운기, 박동진, 박명주, 박민정, 박불똥, 박석규, 박소영, 박수진, 박영숙, 박은영, 박은태, 박재동, 박진화, 박찬경, 박찬국, 박형식, 배영환, 백영선, 백지숙, 서용선, 성능경, 송창, 송희진, 신경호, 신지철, 신학철, 심광현, 심철웅, 안규철, 안성금, 양주혜, 양현미, 엄기홍, 엄혁, 여승열, 여운, 연영석, 염중호, 오세영, 오원배, 오형근, 오혜주, 원동석, 원종란, 유현미, 육태진, 윤동천, 윤석남, 윤용국, 윤준, 이강우, 이관훈, 이기원, 이기정, 이두호, 이불, 이섭, 이승환, 이영욱, 이영준, 이웅배, 이유남, 이윤희, 이은주, 이인현, 이종구, 이종률, 이준희, 이종재, 이형주, 이해경, 이희재, 임연숙, 임옥상, 임정희, 전상용, 전수현, 전용석, 정광호, 정덕영, 정동석, 정비파, 정영목, 정인숙, 정주하, 정현이, 조경숙, 조관용, 주재환, 차성진, 최경한, 최금수, 최민화, 최범, 최석태, 최정화, 최지안, 최진욱, 허구영, 현태준, 홍명섭, 홍미선, 홍선웅, 홍순철, 홍현숙, 황세준, 황인준, 황혜선, 황호경
(이상 작가, 평론가, 큐레이터, 미술기자, 기획자 152명)